

## 스페이스 윌링엔딩링 노은주 개인전 <상황 /희미하게 지탱하기> 작가와의 대화

일시: 2013년 1월 31일 (목) 오후 5:30 - 7:00

장소: 스페이스 윌링엔딩링

패널: 임산(미술평론가), 강석호(작가)

기록: 박주원(윌링엔딩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김지원(윌링엔딩링 인턴)

### Q. 작품 구체화 방법에 대하여? (김대현)

노은주

초기에 사건 사고를 그렸던 작업의 경우, 언론에 난 보도사진을 참고하여 사진 속 이미지를 변형하여 제작했다. 이후, 구조물들이 들어가는 작업들은 사진의 부분들을 재조합하여 폐허의 이미지로 만든 것이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 구조가 잘 드러나는 이미지들을 중점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최근의 <Leaning Against> 작품에서는 심리적 구조에 집중했다. 미리 작게 모형을 제작해보고 그것을 회화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다.

임산

작가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노은주의 작업은 '공간은 왜 나누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지만, 공간에서 형태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초기 작업은 경계나 윤곽선의 설정일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남기거나 머리 속에 그려보는 경우가 많은데, 노은주 작품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회화가 매우 건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의 제작에서 모형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그 안에 나타나는 빛과 그림자를 다시 손을 통해 그려낸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노은주의 작업은 드로잉과 유화, 회화와 건축, 입체와 평면 사이에서 이중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 Q. 화면에 등장하는 '가림막'의 의미는? (정태희)

노은주

경계가 위태롭거나 일시적이라는 전제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가림', '보호', '나눔' 등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림막을 두께감이 있게 그리지 않은 것은, 이것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물성이 느껴지지 않도록 표현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다. 경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다.

임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도구나 재료에 관한 문제는 노은주에 작업에서 중요한 비평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유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얇게 칠해져 연필 자국이 드러나는 표현 방식은 작가의 주제와 개념을 잘 나타낸다.

### Q. 작가의 의도와는 가림막이 오히려 견고한 느낌을 주어 주변 사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도록 한다.(김유라)

노은주

작품 안에서 가림막이 연약하게 보이도록 두께를 표현하지 않는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적

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 이 가림막에 대해, 어떤 사람은 두 개의 관계를 위태롭게 보이게 한다거나, 얽힘의 물성을 느낀 사람도 있고, 혹은 보호를 위한 안정 장치로서 가림막을 보기도 한다. 나는 애초부터 이중적인 의미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림막을 사용했다. 작품 <상황 1>의 가림막에 색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견고하게 보이기도 할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작업들은 색이 없는 판의 형태를 취한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앞으로도 조금씩 변할 것이다. 나는 나의 작업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읽히는 것을 원치않다.

**Q. '실재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설치가 아닌 회화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가?(최희진)**

**노은주**

설치로 표현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이미지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단순한 형태의 회화로 보여졌을 때 미묘하게 전달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가림막을 설치로 제시했다면, 그것의 물성이 가장 전면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회화로 표현되어서 그러한 물성이 매우 모호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감정적인 변화와 다양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회화의 방식을 택했다.

나의 회화에 등장하는 구조물 중에는 현실에서 재현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현실에서 자립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이미지인데, 이것을 설치로 표현하고자 하면 나 스스로도 그 구조물을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는 전체의 주제와 맞지 않는 심리 체험이다.

**임산**

공간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보통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설치를 직접 하는 것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공간의 느낌을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노은주 작가처럼 설치가 아닌 회화로 공간성을 표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회화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 성격을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 초기 작업과 최근 작업 사이의 차이는?**

**노은주**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 나의 손이 관성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행위가 습관처럼 변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다. 이 느낌을 받을 때마다 작업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의 작업의 나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 표현법이 변화했을 뿐이다. 작업을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작업이 1-2년 사이에 크게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초기의 작업들을 디스플레이 해야할지 고민했었는데, 결국 나의 작업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왜 작업이 변화하였는지 사유하게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초기 작업들도 전시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Q. 초기의 작품과 현재의 작품에서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느꼈다. 이는 작가의 고민이나 심리 상태가 투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가? (김유라)**

**노은주**

불안한 감정보다는 불안한 상황, 상태, 처지에 대한 이야기에 더 가깝다. 이러한 나의 작업이 자화상은 아니냐고 주변에서 묻는다(웃음). 처음에는 그런 견해를 부정했지만, 어떤 면에서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림 속 구조물들이 지지하고 서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나 자신의 심리상태나 상황이 일정부분 반영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안과 허무의 감정을 전면에 드러낸다고보다는 그런 것들이 자아내는 '상황' 자체에 대한 표현에 더 흥미가 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임산**

이번 개인전의 전시 제목에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잘 드러난다. 이 전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작가가 일상에서 가졌던 문제 의식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나 놀이공원의 자이로드롭을 볼 때, 그것들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시각적으로 취하면서도 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불안의 요소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작가는 모두의 평온을 보장할 것 같은 공간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서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노은주 작가가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선택한 위협한 공간, 불안한 공간이라는 소재는 오직 작가만의 개인적 느낌이 아닌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느낌이 아닐까싶다. 대한민국의 현대화는 크고 높다란 건물들의 과잉 건축과 더불어 시작했는데, 압축된 경제장 속에서 빠른 시공과 부실한 건축물 관리는 대형사건들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위협에 대한 심리적인 느낌을 굳이 남에게 꺼내지 않고 산다.

그러한 현실에서 과연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면, 노은주 작가의 "희미하게 지탱하기"라는 문장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읽혀졌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나 순수예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다. 노은주의 작품은 그 안에서 저항이나 매니페스토와 같은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태도로서 그런 입장을 지탱하겠다는 시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은 회화 안에서 시대적 상황을 느껴볼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박기현)

**Q.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점은? (차소림)**

**노은주**

내 작업의 시작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착각이나 평소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한 인식이다. 일상적인 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고, 아무 의심 없었던 것에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따라서 나의 작품의 방향성은 완전한 '바깥'의 이야기도 아니고 순전한 '내면'의 개인사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이야기하는 태도로 향한다.

**강석호**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후, 기자들이 노은주 작가를 묘사할 때 '연평도 작가'라고 이

를 붙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웃음) 아마도 그것은 작품 속에 담긴 서사적 이야기와 그러한 서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작가에게 있어 하나의 서사적 사건은 그림을 그리는 발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 이후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작가에게는 다른 서사적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떤 언어로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나는 노은주의 작업을 보며 이 회화를 단순한 이미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 즉 작가의 서사를 상징적 시각 언어로 풀어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화적인 방법론에서의 매너로 생각하면 쉬울 수 있다. 작가들 중에는 본인만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본인만의 기술이란 작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작가만의 기법, 비단 작업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작가의 태도를 통해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노은주 작가의 경우에는 처음 연평도 사건과 같은 실제의 사건을 단지 모방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해석해 만드는 단계를 밟고 있으며 그것은 노은주 작가만의 하나의 태도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작업이다. 작가의 작업이 실제 사진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언어나 분위기를 키워드로 정해서 모방하는 단계, 설치 작업을 통해 실제로 구성해보고 그것을 모방하는 단계 등의 구체적이고 단계적 방법을 통해 작업을 실행하면서 작업의 구조가 보다 탄탄하게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작가에게 남겨진 과제는 물성을 다루는데 있어 설치와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회화에 담긴 서사에 보다 강조점을 둘 것인가 하는 비중의 문제일 것이다.

## 노은주

나의 작업에 대한 태도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나는 내가 쓰는 매너가 보다 잘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초기 연평도 사건을 다뤘던 작업은 다소 단순했던 면이 있다. 작업에서 물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빛, 어둠 그리고 색에 대한 부분 정도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잘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 한계가 느껴졌다. 과연 이러한 작업 방법을 통해 내가 지속적으로 작업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조금씩 다른 작업들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작업에 다양한 기법이 쓰여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린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과연 나만의 기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때문에 나는 작업에 있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것들을 주제에 맞추어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다. 아직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작업이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도록 작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작은 변화 과정들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매너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임산

작가가 앞으로 작품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전에 했던 작업들, 가령 상수동 빈 집에서의 설치와 같은 시도를 다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든다. 노은주 작가는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경계를 선택했고, 이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작가는 초기에 설치 작업을 통해 경계의 강약과 경계 간의 긴장을 느껴봤을 것이고, 그 체험이

회화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회화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 못지 않게, 설치나 퍼포먼스 등의 작업 방식들을 통해 자신의 공간연구를 더욱 다듬어가길 바란다.

이 글의 저작권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 있으며, 사용 시 출처와 저자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